

음모론 신뢰의 결정 요인: 정파성, 미디어 사용, 정부제도 신뢰*

이병재 | 연세대학교**

조화순 | 연세대학교***

김범수 | 연세대학교****

| 국문요약 |

본 연구는 개인의 정파성, 미디어 사용 패턴, 정부 신뢰가 정치 음모론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2021년 독자적으로 실시된 서베이 데이터를 로짓 회귀분석에 활용하였으며, 보수 및 진보 성향의 음모론 신뢰를 종속 변수로 설정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정파적 성향이 음모론 신뢰에 큰 영향을 미쳤다. 둘째, 인터넷 미디어 사용은 정치적 성향과 무관하게 음모론 신뢰와 상관관계를 보였다. 특히, 유튜브, 팟캐스트, SNS를 통해 뉴스를 접하는 사람들이 공중파나 전통적 매체를 이용하는 사람들보다 음모론을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정파성과 음모론 신뢰 간의 관계에서 뉴스 미디어 사용이 매개나 조절 역할을 하지는 않았다. 셋째, 포털 사이트는 인터넷 미디어로 분류되지만, 그 소비 패턴은 유튜브, 팟캐스트, SNS와 달리 전통적인 매체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음모론은 이념이나 정파성보다는 유튜브, 팟캐스트, SNS 링크를 통해 더 많이 전파되었다. 마지막으로, 정부제도 일반과 중립적 정부제도에 대한 신뢰 수준에 따라 음모론 신뢰 수준에 차이가 있었다.

주제어 | 음모론, 정파성, 정치 이념, 인터넷 미디어, 정부제도 신뢰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이다 (NRF-2020S1A5C2A03093177). 세심하고 유익한 코멘트를 해주신 세 분의 심사위원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 제1저자, 연세대학교 디지털사회과학센터 연구교수

*** 공동저자,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교신저자, 연세대학교 디지털사회과학센터 연구교수, goyangdavid@gmail.com

1. 서론

음모론은 사건의 원인을 강력한 비밀 집단의 조직적인 개입으로 설명한다 (Keeley 1999; Oliver and Wood 2014). 9/11 테러 공격이나 달 착륙을 미국 정부의 자작극이나 조작으로 보고, 중국 우한의 실험실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가 유출되었다고 주장한다. 음모론은 현실의 권력관계를 변화시키려 하기에 정치적이다. 사회의 혼란 시기나 전환 시기에 정치적 지배와 저항 과정에서 음모론이 등장한다(Uscinski and Parent 2014).

음모론은 정치권력적 표현이다. 통치자는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통치 음모론을 만들고, 저항자는 통치권력에 저항하기 위해 저항 음모론을 만든다(전상식 2014). 정치행위자인 개인이나 집단이 외부의 세력에 의해 자신들의 체계모니가 위협받는다 느낄 때, 자신들을 정치적 권력 다툼의 패자라고 인식할 때, 음모론을 제기한다(구지혜·김민철 2023, 135; Uscinski and Parent 2014). 음모론은 상황에 대한 과학적 방법에 따른 입증이 아니라 정치적 열망의 표현이다.

한국에서도 음모론은 권력적 표현으로 등장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천안함 음모론과 부정선거 음모론을 들 수 있다. 부정선거 음모론은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에 활성화되었고 선거 때마다 패배한 개인과 정당이 제기한다. 부정선거 음모론은 대법원장 인사청문회와 같은 정치 갈등의 장에서 거론된다(뉴시스 2023/12/6). 천안함 피격 음모론에 대한 신뢰 여부도 국회 고위공직자 청문회에서 논쟁의 대상이 된다(이우연 2023; 연합뉴스 2020/9/22). 기존의 많은 연구는 천안함 사건을 한국 사회의 당파적 갈등을 드러낸 사건으로 정치권과 언론에서 당파적 갈등을 일으켜 한국 정치와 사회의 이분법적 정치구조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한다(김상균 2020; 조대근·김진원 2023, 75; 정태일 2017). 양대 정당이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거나 상대를 제압하기 위해 음모론을 활용하기도 한다. 음모론은 진보-보수 정치 균열을 동원하여 한국 사회의 정치 양극화를 격화시킨다. 한국 사회에서 대북인식과 대미인식은 유권자들의 정치적 태도를 결

정하는 주요 요인이라는 연구가 제시된 바 있다(윤성이·이민규 2014; 조대근·김진원 2023, 75). 이 연구의 논리에 따르면 천안함 음모론의 신뢰 여부는 유권자들의 정치적 태도와 연결되며, 부정선거 음모론은 선거의 정당성을 훼손시켜 패자의 책임을 선거관리의 책임으로 전환하여 궁극적으로 패자의 정치권력을 회복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음모론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이론적으로 도출하고 경험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논문은 다음의 순서로 진행된다. II장은 음모론에 대한 이론적 논의로서, 음모론의 정의와 음모론 신뢰의 요인을 도출한다. 정치권력적 요인으로서 정파성, 미디어 요인으로서 인터넷 미디어 활용, 그리고 정부제도에 대한 신뢰에 초점을 둔다. III장은 연구 가설 및 변수 그리고 분석 모델을 설명한다. IV장은 데이터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천안함 폭침을 의심하는 음모론과 총선 부정선거 음모론을 신뢰하는 이유가 진보 혹은 보수의 정치이념에 근거한 정파성과 정파적 정부 신뢰, 그리고 유튜브와 SNS를 통한 뉴스 소비와 같은 인터넷 미디어의 이용에 있음을 주장한다. V장은 분석 결과를 요약하고, 한국 정치에서 음모론에 대응하기 위한 이론적,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II. 이론적 논의

1. 음모론의 정의와 유형

음모(陰謀)는 음달 음(陰)자와 꾀할 모(謨)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을 꾸미는 책략”이다.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서 음모(conspiracy)는 비밀 책략(secret plot)으로 정의된다. 음모의 주체는 둘 이상이다. 영어에서 음모는 권력을 가진 둘 이상의 행위자들에 의한 비밀 책략이다(Douglas et al. 2019, 4; Keeley 1999; Pigden 1995). 음모가 책략 자체라면, 음모론은 책략에 관한 이야기로서 행위에 대한 가설이자 추측이다. 음모론은 “어떤 사건이나 행위를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남들 몰래 별이는 책략 탓으로 돌리려는 노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선스타인 2015, 24). 전상식(2014, 39-41)은 음모론의 요건을 다섯 가지로 정리했다. ① 권력 자원의 활용: 자원, ② 둘 이상의 사람들: 공모, ③ 뚜렷한 목적: 의도, ④ 비밀스러운 계획: 비밀, ⑤ 중요한 결과: 인과관계이다.

음모론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첫째, 음모론은 합리적 의심과 구분된다. 음모론은 “증거에 기반하지 않고 확실하지 않은 여러 행위자가 관여하여 특정 대상에게 비밀로 하고, 그 특정 대상에게 악영향을 만들기 위한 소설적 구성의 이야기 구조”로 정의된다(Abalakina-Paap et al. 1999; Golec de Zavala and Federico 2018, 1011). 음모론은 증거에 기반하지 않은 소설적 구성이다. 음모론은 근거가 모호하고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 근거가 확실하고 논리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이야기는 음모론이 아니라 합리적 의심이다.

둘째, 음모론은 특정 대상자를 공격하려는 목적을 갖는다. 대상자를 이롭게 하는 비밀 공모도 논리적으로 가능하다. 선스타인(2015, 26)은 해로운 음모론과 해롭지 않은 음모론으로 구분하고, 성탄절 이브에 저 멀고 먼 어느 곳에서 비밀스러운 요정 집단이 ‘산타클로스’라는 신비로운 리더의 지시에 따라 선물을 만들어 성탄절 이브에 나눠준다는 비밀의 이야기 구성을 유해하지 않은 음모론의 예로 들었다. 그러나 유해하지 않은 비밀 공모를 음모론이라 명명하기 어렵다. 음모가 사전적으로 ‘나쁜 목적으로 몰래 흉악한 일을 꾸민’ 행위이기 때문이다.

셋째, 음모론은 사실로 밝혀진 “사실 음모론”과 그렇지 않은 “허위 음모론”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실이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음모론”은 민주주의에 무해하고 유익하다(선스타인 2014, 25). 음모론에 관한 토론은 논의가 진행될수록 근거와 추론의 합리성을 높여 사실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된다. 민주주의 정치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허위 음모론이다. 허위 음모론은 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인과관계가 검증되지 않은 이론을 제시하여 합리적 대화를 방해한다. 허위 음모론은 종교화된 신앙처럼 음모론에 대한 믿음을 요구한다.

넷째, 음모론은 수준에 따라 공적 음모론과 사적 음모론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적 음모론은 정치적 권력이나 경제적 자원을 사용하여 개인이나 집단의 권리를 침해하고, 기존의 규범을 무너뜨리려는 의도가 있다. 예컨대, 비틀스의 폴 매카트니는 예전에 죽었고 지금 활동하는 사람은 가짜라는 폴 매카트니 음모론은 사적 음모론이다. 공적 음모론은 워터게이트 추문처럼, 권력의 유지와 획득을 목표로 한 정치적 경쟁 속에서 등장한다(전상식 2014, 42). 공적 음모론은 권력의 획득과 유지가 목표라는 점에서 정치 음모론이다.

2. 음모론과 민주주의

합리적 의심으로서의 음모론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다. 미국 독립전쟁 당시 영국과 식민지 관료들을 겨냥한 음모론은 식민지인들의 독립에 대한 열망과 당위성을 공유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전상식 2014, 5). 권력자가 합리적 의심을 포함한 음모론을 탄압한다면, 민주주의는 발전하기 어렵다. 합리적 의심을 음모론이라 낙인찍는 행위는 그 사회의 민주주의가 위협받는다라는 증거이다(전상식 2014, 12). 합리적 의심으로서의 음모론은 권력에 대한 비판에 포함될 수 있다. 음모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거나 삭제하는 경우, 권력에 대한 비판이나 합리적 의심도 억압받는다.

합리적 의심을 내포하지 못한 음모론은 민주주의에 반한다. 그런 음모론은 근거 없는 유언비어나 허위 정보이며, 잘못된 신념으로서 폭력 사태나 테러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선스타인 2015, 21-23). 2020년 미국 대선에서 등장했던 부정선거 음모론은 2021년 1월 6일 미국 국회의사당에 대한 폭력적 시위를 촉발했다. 합리적 근거가 부족한 음모론은 사회 분열을 심화하고, 정부와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불신을 활성화하여 폭력을 정당화하고 민주주의 정치 과정을 혼란에 빠뜨린다(Radnitz 2022b, 148-150). 혼란은 음모론을 키우고, 음모론은 혼란을 확산시킨다. 음모론은 편견과 연결되었고, 마녀사냥, 혁명, 그리고 학살(genocide)과 같은 정치 사건과 연결되었다(Douglas et al. 2019, 3).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대통령이 에이즈 처방 약을 서방의 음모라 주장하고 에이즈 백신 처방 정책을

증단하여 33만 명 이상의 사망을 초래하기도 했다(Chigwedere et al. 2008).

음모론이 민주주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음모론은 공론장을 방해한다. 음모론은 주장을 입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다(Radnitz 2022b, 149). 음모론은 내 편이 옳고 다른 편은 틀렸다는 이분법과 함께 작동하여 반이성주의와 맥을 같이한다(안재원 2022, 41-43). 멜리(Melley 2000, 8)는 음모론의 매력을 “설명되지 않은 사태, 매우 복잡한 사건에 대한 설명을 단순한 방식으로 제시”하여 “불확실성의 시대에 편안함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했다. 음모론은 복잡한 현상을 단순화하고, 허위 인과관계를 주장한다.

둘째, 음모론은 정부의 정책을 불신하게 한다. 음모론은 정부의 보호기능을 불신하게 하고 정부 규제에 반발하게 한다(Prooijen 2022). 음모론자는 정부가 사익을 위해 모종의 계락을 짜고 국민을 통제한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제시한 정보 제공과 같은 방법으로는 음모론자들의 잘못된 믿음을 바로잡기 힘들다(선스타인 2015, 26). 음모론은 정부의 정책집행과정에서 기후 위기나 코로나-19의 대응 정책, 원자력 정책 추진을 어렵게 하였다(Bierwiazzonek et al. 2022; Eyles et al. 2014).

셋째, 음모론은 적대적 경쟁을 활성화한다. 정치적 경쟁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와 언론의 자유,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전제한다. 그런데 언론, 표현, 결사의 자유와 경쟁은 합리적 의심뿐만 아니라 합리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음모론의 등장 가능성도 높인다. 히틀러가 주장한 유태인 음모론은 선거 경쟁에서 선전 선동의 소재로 활용되었다. 권력자가 민주주의 공론장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저항 세력을 억압하기 위해 음모론을 이용한다. 정치 경쟁이 활성화될수록 공직자들은 음모론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규범이 약해진다(Radnitz 2022b, 148). 음모론은 선거 경쟁을 적대적으로 만들어 민주주의를 무너뜨릴 수 있다.

3. 음모론 신뢰의 결정 요인들

음모론을 신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 번째는 정치 양극화와 관련이 있다.

양극화에 대해서는 많은 이론적, 경험적 연구가 존재한다(가상준 2014; 길정아 2019; 김형준 2015; Bramson et al. 2016; DiMaggio et al. 1996; Duclos et al. 2004; Esteban and Ray 1994; Fiorina et al. 2008; Fiorina 2010; McCarty 2019; McCarty et al. 2016; Przeworski 2022; Sides and Hopkins 2015; Stanig 2011). 음모론은 기존의 신념과 편견을 강화하고 유사한 신념을 공유하는 개인들 사이에 부족주의(tribalism)를 조성하게 되어 정치 양극화와 연결된다(Chua 2018; Mason 2015, 2018). 정파적 정체성을 강하게 가질수록 정파적 음모론을 신뢰할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정파성에 따른 네트워크가 긴밀하게 결속될수록 음모론에 빠져들기가 더욱 쉽기 때문이다(선스타인 2015, 49). 양극화의 심화에 따라 개인의 신념은 더욱 확고해지는 경향을 보이며, 자신의 신념과 다른 관점을 고려하거나 상대방과 타협하지 않으려 한다(Iyengar and Hahn 2009). 이 과정에서 개인들이 보이는 경향이 동기화된 추론(motivated reasoning)이다(Miller et al. 2016; Radnitz 2022a). 정치 양극화의 심화로 인해 정파성이 강한 개인일수록 정파적으로 동기화된 추론을 하게 되며 정치적, 공적 음모론을 더욱 쉽게 수용하는 경향이 있다.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공격이 아닌 다른 원인, 아군의 잠수함이나 해저지물에 의해 좌초되었다는 음모론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주장해왔다. 진보적 이념 성향의 사람들이 천안함이 북한어뢰가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침몰했다는 천안함 음모론을 신뢰할 가능성이 높다. 2020년 국회의원 부정선거 음모론은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 지지자들이 주장해왔다. 정치이념이 보수일수록 부정선거 음모론을 신뢰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에 근거하여 이념적 정파성과 음모론에 대한 신뢰에 관한 첫 번째 가설이 도출된다.

H1: 자신의 진보-보수 이념에 따라 음모론을 신뢰한다.

H1-1: 자신의 이념이 진보적일수록 천안함 음모론을 신뢰한다.

H1-2: 자신의 이념이 보수적일수록 부정선거 음모론을 신뢰한다.

둘째, 정부에 대한 불신이다. 정부가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은폐한다고 생각하는 정부 비판자들은 음모론을 더 쉽게 믿는 경향이 있다. 정치적 냉소주의는 정부 불신의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 권위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정부에 의해 소외되었다고 생각할수록 음모론을 더 믿는 경향이 있다. 어친스키 등(Uscinsky et al. 2021)은 미국의 경우 대중들이 대체로 정치에 무관심하며 이념에 구애받지 않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념적인 좌-우의 양극화에 포착되지 않는 기성체제-반기성체제(establishment vs anti-establishment)의 다른 차원의 양극화가 관찰된다고 주장한다(Uscinsky et al. 2021). 정부 및 정치체제에 대한 불신자와 정부 및 정치체제에 대한 신뢰자 사이에는 음모론 수용의 차이가 발생하며, 불신자일수록 음모론을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정부에 대한 신뢰는 또한 개인의 정파성과 연관된다. 정파적 선호에 따라 정부제도에 대한 신뢰의 수준이 다르고, 신뢰 수준의 차이는 음모론 신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단일체가 아니며, 입법, 사법, 행정은 물론 군대와 경찰 등을 모두 포괄한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를 세부적인 기구 및 제도들로 구성된 다면적이고 복합적인 제도로 파악한다. 대통령, 행정부 및 국회를 포함하는 정치적 성격의 제도에 대한 신뢰와 군대, 경찰, 법원 등의 상대적으로 중립적인 성격의 정부제도에 대한 신뢰를 분리하여 파악한다.

H2-1: 정부제도 일반에 대한 신뢰가 낮을수록 음모론을 신뢰하는 경향이 높다.

H2-2: 중립 정부제도에 대한 신뢰가 낮을수록 음모론을 신뢰하는 경향이 높다.

셋째, 인터넷 미디어 사용이 음모론의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Corbu 2023; Lee et al. 2023). 공중파나 종이신문과 같이 공정성에 대하여 심의받는 언론사가 아닌 인터넷 1인 미디어는 공정성 심의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그 결과 정파적 음모론과 허위 정보를 생산 및 확산시킬 가능성이 높다(이하림·유홍식 2021). 특

히, 팟캐스트와 유튜브 방송은 정파적으로 극단화되어 있으며, 진실성 검증은 인터넷 1인 미디어에서 이차적인 관심사다. 정파성이 강한 사람은 자신의 견해에 부합하지 않는 견해를 회피하며 팩트체크 등을 통한 수정도 원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Iyengar and Hahn 2009; Stroud 2011). 하지만, 포털은 유튜브와 같은 1인 미디어와 구분된다. 포털의 기사는 대부분 유력 언론사 및 방송사가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의에 기반하여 공중파 기사와 포털 기사보다 인터넷 미디어를 이용할수록 음모론을 더 신뢰할 것이라는 가설이 도출된다.

H3: 공중파보다 인터넷 미디어(유튜브 등)를 이용할수록 음모론을 신뢰한다.

넷째, 대중들은 자신의 정파적 시각을 강화하는 정보와 매체를 더욱 추구하게 된다(Lazarsfeld et al. 1948). 정파 미디어 선택과 정파 음모론의 관계는 인지 부조화(cognitive dissonance)와 선택적 노출(selective exposure)의 이론적 틀에서 설명할 수 있다(Festinger 1962; Knobloch-Westerwick 2015; Zillman and Bryant 1985). 개인은 자신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견해에 어긋나는 정보를 회피하고, 자신의 기존 견해에 부합하는 정보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Bennett and Iyengar 2008; Dylko et al. 2017; Iyengar et al. 2008; Nyhan and Reifler 2010; Stroud 2011). 개인의 이러한 경향은 정확한 사실 추구보다는 기존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견해에 부합하는 정보를 지속해서 소비하는 경향을 강화한다. 이러한 논의에서 개인의 이념적 성향과 인터넷 매체의 상호작용에 관한 네 번째 가설이 도출된다.

H4: 인터넷 매체의 사용은 자신의 이념 성향에 부합하는 음모론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

위에서 제시한 요인들 외에도 개인의 다양한 심리적 성향이 음모론 수용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면, 개인의 심리적 기질로 인해, 하나의 음모론을 믿는 사람은 다른 음모론을 믿을 가능성이 높다(Goertzel 1994; Swami et al. 2010, 758).

하지만, 본 연구에 사용한 설문조사는 개인 심리 성향 설문 문항을 포함하지 않아 개인의 다양한 심리 요인을 변수로 반영하지 못하였다.

III. 데이터 및 주요 변수

본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는 2021년 8월 온라인 여론조사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하여 인터넷 기반 서베이 방식으로 수집되었다. 전체 표본은 1,000명이었으며, 성별, 연령대별, 지역별에 따라 할당 표집되었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는 다음과 같다 (사용된 전체 변수의 기술통계는 <첨부 1> 참조).

1. 주요 변수

1) 종속 변수

본 연구에 사용된 종속변수는 정파적인 성격을 띠는 두 개의 대표적인 음모론에 대한 신뢰이다. 첫째, “천안함은 북한군 어뢰에 의해 피격된 것이 아니다”(이하 “천안함 피격 음모론”)라는 음모론이며, 둘째, “2020년 4월 국회의원 선거는 부정선거였다”(이하 “총선 부정선거 음모론”)라는 음모론이다. 이 두 음모론에 대해 동의 여부를 각각 질문한 후 4점 척도(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매우 동의함)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분석의 명확성을 위해 4점 척도를 동의하지 않음(0), 동의함(1)의 이항 변수로 재코딩하였다.

천안함 사건은 2010년 3월 26일(금) 21:22분경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정상적인 임무를 수행 중이던 해군 2함대 소속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하였으며, 승조원 총 104명 중 46명이 전사하고 58명은 생존한 사건이다(대한민국 국방부 2010, 34). 이 사건에서 해군 장병 40명이 사망하였고 6명이 실종되었다. 국방부는 “천안함은 어뢰에 의한 수중 폭발로 발생한 충격파와 버블효과에 의해 절단되어 침몰당하였고, 폭발 위치는 가스터빈실 중앙으로부터 좌현 3m, 수심

6-9m 정도이며, 무기체계는 북한에서 제조, 사용 중인 고성능폭약 250kg 규모의 CHT-02D 어뢰로 확인하였다”라고 발표하였다(대한민국 국방부 2010, 205).

국방부의 발표에 대해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이었던 신상철¹⁾은 의문을 제기하였다. 신상철 조사위원은 최근 2023년 6월 15일 한 유튜브²⁾ 방송에 출연하여 “천안함 사건 핵심 조작 5가지”를 주장하였다(촛불행동TV 2023/6/15). 이는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오랜 기간 주장해오던 내용의 요약이었다. 첫째, 어뢰 폭발설이 아닌 좌초설이다. 둘째, 어뢰 추진체는 사고 현장에서 수거한 것이 아니라 국방부 창고에서 가져온 것이라는 주장이다. 셋째, 열추적 적외선(TOD) 카메라 영상에 대한 의문이다. 넷째, 어뢰 추진체에 흡착된 흰 물질은 폭발 산화물이 아니라 알루미늄 녹인데, 국방부가 이 사실을 은폐했다는 주장이다. 다섯째, 생존자 중 다수가 폭발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신상철 위원을 대상으로 허위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 법원 판결은 2016년 1월 25일에 “천안함 좌초설 주장”은 무죄, 군 비방은 유죄였다(김효은 2016).³⁾ 1심 법원은 천안함이 북한 어뢰 폭발로 침몰당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에, 신상철 조사위원이 좌초설을 주장하게 된 것은 정부와 군의 지나친 정보 독점에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허위·명예훼손 혐의를 받았던 34건의 게시글 중에서 2건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 측과 검찰 측이 모두 2심 법원에 항소하였고, 2심에서는 2020년 10월 6일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0). 2심 법원은 ‘흡착물질’과 ‘스크루 휩 현상’에 관한 부분은 과학적 규명이 여전히 필요한 영역이라고 판단하면서도,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수중

-
- 1) 신상철 조사위원은 국방부가 한국인 49명, 외국인 24명으로 구성된 민·군합동조사단의 일원이다. 민·군합동조사단은 국회가 민주당과 한나라당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구성하였으며, 민주당이 신상철 위원을 추천했다.
 - 2) 촛불행동TV. 2023. “천안함 사건 핵심 조작 5가지! [신상철 특집대담].”
<https://www.youtube.com/watch?v=hgbEAYmifYY> (검색일: 2024. 5. 3).
 - 3) 김효은. 2016. “신상철 ‘천안함 좌초설’은 무죄, 군 비방은 유죄.”
<https://v.daum.net/v/20160125173405522> (검색일: 2024. 5. 3).

비접촉 폭발로 발생한 충격파와 버블효과에 의해 절단되어 침몰하였다는 사실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천안함 북한 어뢰 폭침설이 사실에 부합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위의 자료 26). 3심인 대법원은 2022년 6월 9일 2심 법원의 선고를 인용하고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22). 천안함 사건은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10년에 발생하였다. 당시 보수 성향의 한나라당이 여당이었고, 진보 성향의 민주당이 야당이였다. 천안함 피격 음모론은 민주당이 추천한 조사 위원이 한나라당 출신의 이명박 대통령 정부(국방부)를 상대로 제기한 것이었다. 당시의 한나라당과 현재의 국민의힘 정당이 보수 성향이며, 민주당이 진보 성향임을 고려할 때 천안함 피격에 관한 음모론은 진보 성향의 사람들이 믿기 쉬운 음모론으로 볼 수 있다.

21대 총선 부정선거 음모론은 2020년 국회의원 선거 시기에 등장하였다. 2020년 4·15 총선에서 인천 연수구 을에 출마했던 민경욱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후보에 밀려 낙선한 뒤 4·15 총선이 QR코드 전산 조작과 투표 조작으로 이뤄진 부정선거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민경욱은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에서 선거인수와 투표수가 일치하지 않고, 사전투표 비율이 63:36으로 일관된다”라며 “집계가 실종된 선거구 등이 있어 조작하지 않고선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결과가 나왔다”라고 주장했다(김태훈 2020). 선거무효 소송은 대법원이 1심을 맡아 단심으로 결정한다. 대법원은 “이 사건 선거에 공직선거법 규정에 위반된 위법이 있거나 그에 관한 증거가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많은 사람의 감시하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부정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산 기술과 해킹 능력뿐만 아니라 대규모 조직과 막대한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며 “원고는 부정선거를 실행한 주체가 누구인지조차 증명하지 못했다”라고 선고했다. “사전투표에 참여한 선거인과 당일투표에 참여한 선거인의 지지 성향 차이나 선거일 당시의 정치적 판세에 따라 전국적으로 특정 정당의 후보자에 대한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득표율에 비해 높거나 낮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그것이 이례적·비정상적이라고 볼 수도 없다”라고

판단했다. “사전투표지 일련번호를 QR코드로 인쇄한 것이 선거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거나 위조 투표지가 존재한다는 등 주장은 근거가 없다”라고 결정했다(정성조 2022). 총선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한 민경욱 후보는 보수 성향인 미래통합당 소속이었다. 미래통합당은 현재(2024년) 국민의힘의 전신이었으며, 많은 보수 성향의 정치인들과 유튜버들이 부정 선거의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요인들과 더불어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이 부정선거로 인해 미래통합당이 선거에서 졌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할 수 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지역구 253석 중 더불어민주당이 163석, 미래통합당이 84석을 얻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2020년 총선의 경우 정치적 성향이 보수적일수록 총선 부정선거 음모론을 신뢰할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된다.

2) 독립변수

주요 독립변수에는 미디어 사용 유형, 이념적 성향 그리고 정부제도에 대한 신뢰가 포함되었다.

가. 미디어 사용 유형

최근 들어 공중파 매체보다는 팟캐스트, 유튜브, SNS를 통한 소비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응답자의 미디어 사용 패턴을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첫째, “선생님은 주로 어떤 매체를 통해 뉴스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십니까?”라는 질문에 1. 공중파 TV 시청(공중파 재생 팟캐스트 포함), 2. 포털 사이트, 3. 정치 및 시사 팟캐스트(공중파 재생 팟캐스트 제외), 4. SNS를 통해 전달된 링크, 5. 종이신문 구독, 6. 정치 및 시사 유튜브 동영상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였다. 이 응답을 매체의 특성에 따라 1. 공중파 TV 시청 (공중파 재생 팟캐스트 포함) 및 종이신문 구독, 2. 포털 사이트, 3. 팟캐스트, SNS 링크, 그리고 유튜브의 세 개의 범주로 재분류하였다. 포털 사이트는 주로 뉴스, 검색 및 이메일 등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플랫폼인 반면, 유튜브, SNS, 팟캐스트 등의 1인 미디어는 개인이 직접 콘텐츠를 제작하고 배포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따라서 포털은 전통적인 미디어와 유사하게 뉴스와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이 크며, 비교적 공식적이고 신뢰성이 높은 정보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으며, 1인 미디어는 제작자의 창의성과 특성이 반영된 콘텐츠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둘째, 응답자에게 20개의 주요 미디어에 대한 사용빈도를 질문하여 조사하였다. 사용빈도에 대한 조사 방식은 응답자에게 20개의 매체에 대해 “선생님은 해당 매체를 얼마나 자주 사용하십니까?”라는 질문에 1~5의 리커트 척도로 “매우 자주”에서 “전혀 하지 않는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설문에서 제시된 매체는 공중파(KBS, MBC, SBS, CBS, YTN), 주요 중앙일간지(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매일신문, 문화일보), 인터넷 신문(오마이뉴스, 프레시안, 허핑턴포스트), 팟캐스트(김어준의 뉴스공장, 가로세로연구소,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신의한수, 펜앤마이크)였다. 20개 매체에 대한 사용빈도를 요인분석하여 세 개의 요인을 추출하였다. 세 요인의 고유값(eigenvalue)이 1.00 이상이었으며, 세 요인에 의한 합계 설명은 95.97%였다. 세 요인과 각 문항의 변량을 비교한 후 각 요인을 1. 인터넷 매체 성향, 2. 공중파 매체 성향, 3. 진보 매체 사용 성향으로 보았다. 인터넷 매체 성향은 KBS, MBC, SBS, YTN 등의 공중파 TV를 제외한 다른 미디어(인터넷 신문 및 팟캐스트)의 매체 사용 경향을 나타내며, 공중파 매체 성향은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허핑턴포스트, 김어준의 뉴스공장, 가로세로연구소, 신의한수, 다스뵈이다, 펜앤마이크 및 CBS 등의 인터넷 매체와 팟캐스트에 대해 음의 요인 로딩을 나타내며, 주요 방송사, 중앙일간지를 빈번히 사용하는 성향을 나타낸다.⁴⁾ 진보매체 사용성향은

4) CBS는 공중파임에도 응답자들의 사용 패턴이 팟캐스트 및 인터넷 매체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는데, 이는 CBS가 종교방송이라는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에서는 CBS 방송 매체의 사용빈도가 아니라 뉴스매체로서의 CBS 사용 빈도만을 질문하였기 때문에 CBS의 시사 관련 프로그램 및 재생 팟캐스트에 대한 사용빈도를 응답한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매일신문, 가로세로연구소, 신의한수, 펜앤마이크 등의 보수 매체에 대해서 음의 요인 로딩(factor loading)을 나타냈다(미디어 사용 패턴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는 <첨부 2> 참조). 이 세 개의 요인을 활용하여 각 성향별 예측값을 생성하였다.

나. 주관적 이념과 정책적 이념

컨버스(Philip Converse)에 따르면 이념 성향은 쉽게 변하지 않는 특성이다(Converse 1964). 이념의 측정에 관해서는 많은 이론이 제시되었지만, 본 서베이에서는 주관적 이념성향과 정책적 이념성향의 두 가지의 이념을 각각 측정하였다. 주관적 이념은 응답자가 주관적으로 평가한 자신의 이념으로서 0~10의 11개의 값에 자신의 이념적 성향을 표시하였다(0: 진보 ~ 10: 보수).

정책적 이념성향은 한국사회의 주요 정책적 쟁점에 대한 8개의 설문 문항에 대한 응답을 활용하였다. 이 질문에는 북한에 대한 태도, 최저임금 인상, 복지정책, 교육정책, 동성결혼 등의 다양한 쟁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응답자들은 10점 리커트 척도로 매우 반대에서 매우 찬성까지 답변하였다(전체 설문 문항은 <첨부 3> 참조). 8가지 쟁점에 대한 응답에 대해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 분석 결과 요인 1의 고유값은 2.62였으며, 요인 2 이하의 고유값은 1.00 이하였다. 제1 요인을 활용하여 정책적 이념성향 예측값을 생성하였다.⁵⁾

본 연구에서 이념을 두 가지 방법으로 측정한 이유는 한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자기응답식 이념 응답에서 대부분의 응답자가 중도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며, 주관적인 이념과 정책적인 이념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장승진 2020; Ellis and Stimson 2012). 본 연구에서는 정당일체감을 포함시키지 않고 주관적 이념과 정책적 이념을 분석에 포함시켰는데, 이는 이념적 성향과 정당일체감 변수 간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이 초래할, 효과의 불명확성에 대한

5) 문항 반응 이론(Item Response Theory)을 이용하여 부분점수 방법(partial credit score)을 활용한 경우도 커다란 차이는 없었다.

우려에 기인하였다(장승진·하상웅 2022; 허석재 2013).

다. 정부제도에 대한 신뢰

정부제도에 대한 신뢰는 대통령, 법원, 중앙정부, 국회, 군대, 경찰 등의 정부 기구를 어느 정도 신뢰하는가에 대한 응답을 활용하여,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 매우 신뢰한다)하였다(설문 문항은 <첨부 4> 참조). 각 정부 기관에 대한 신뢰에 대한 응답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요인 1의 고유값이 3.41 이상이었으며 56.98%의 설명력을, 요인 2의 고유값이 1.01이며 16.79%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요인분석 결과는 <첨부 5> 참조). 요인 1은 모든 정부제도에 대한 신뢰에 양의 요인 로딩을 나타내며, 요인 2는 대통령과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에는 강한 양의 요인 로딩을, 국회에 대해서는 매우 약한 양(+의) 로딩, 법원, 군대, 경찰에 대해서는 강한 음(-)의 요인 로딩을 나타냈다. 요인 1은 행정, 입법, 중앙정부를 비롯한 정치적인 성격을 띠는 정부제도는 물론 법원, 군대, 경찰 등의 비정치적인 성격을 갖는 정부제도에 대한 신뢰에도 강한 로딩을 나타냈다. 요인 2는 대통령과 중앙정부라는 강한 정치적 성격을 띠는 기관에는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지만, 법원, 군대, 경찰 등의 중립적인 기관에는 강한 부의 관계를 가지는 요인이다. 본 연구에서는 요인 1을 정부기관 일반에 대한 포괄적 신뢰로, 요인 2는 정파적인 성격을 나타내며 비정치적인 제도에 대한 불신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중립 제도에 대한 불신으로 파악하였다. 요인 1과 요인 2를 활용하여 각 정부기관 신뢰도 예측값을 생성하였으며, 요인 2의 경우 해석의 편의를 위해 예측값의 부호를 바꾸었다. 따라서 요인 2에 근거한 예측값은 중립 정부제도에 대한 신뢰를 나타낸다.

3) 통제 변수

가. 정치관심과 정치지식

정치에 대한 관심은 “나는 정치에 관심이 많다”, “나는 정치관련 뉴스를 챙겨

본다”, “나는 정치적 이슈로 주변인과 토론을 자주 한다”에 대한 5점 리커트 척도의 응답을 합산한 후 표준화하였다. 정치지식 변수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응답을 바탕으로 구축되었다. 1. 국회 다수당, 2. 당시 미국 대통령의 이름, 3. 당시 일본 총리의 이름, 4. 당시 야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이름, 4. 검찰총장 탄핵에 필요한 정족수. 이 질문들에 대해서 맞은 답의 개수를 표준화하였다. 또한, 정치 참여 정도의 비교를 위해 20대 총선 투표 참여 여부도 고려하였다.

나. 인구학적 변수

성별은 여성은 1, 남성은 0으로 코딩되었다. 연령은 서베이 시점의 나이를 기준으로 20대 (또는 이하), 30대, 40대, 50대 및 60대 이상으로 분류하였다. 이 밖에 가계소득, 교육수준 등이 인구학적 변수로 포함되었다. <표 2>는 주요 변수들의 측정에 사용된 문항과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주요 변수들에 대한 기술통계는 <첨부 1> 참조).

<표 1> 변수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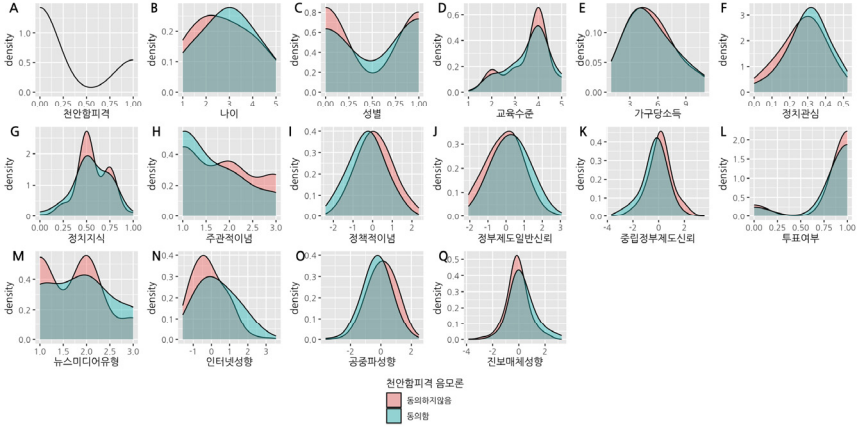
변수		문항	측정	
종속	“천안함 피격” 음모론	선생님은 다음의 진술에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1, 2 => 0 3, 4 => 1	
	“21대 총선 부정선거” 음모론	1: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4. 매우 동의한다		
독립	정치적 요인	주관적 이념	선생님의 정치적 이념 성향을 표시해 주십시오. 0: 매우 반대 ~ 10: 매우 찬성	
		정책적 이념	선생님은 다음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매우 반대 ~ 10: 매우 찬성	요인 분석 결과 제1요인으로 예측값 생성
		정부제도 신뢰	선생님은 다음의 기관(대통령, 중앙정부, 국회, 법원, 군대, 경찰)을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	응답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추출된 2개

			1: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 5: 매우 신뢰한다.	요인으로 예측값 생성
	미디어 요인	미디어 사용 유형	선생님은 주로 어떤 매체를 통해 뉴스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십니까? 1: 공중파 TV 시청(공중파 재생 팟캐스트 포함), 2: 포털사이트, 3: 정치시사 팟캐스트(공중파 재생 팟캐스트 제외), 4: SNS를 통해 전달된 링크, 5: 종이신문 구독, 6: 정치.시사 유튜브 동영상	1, 5 -> 1; 2 -> 2; 3, 4, 6 -> 3
		미디어 사용 성향 점수	20개 주요 매체 사용빈도에 대한 요인분석을 통해 인터넷 사용 성향; 공중파 사용 성향 및 진보매체 사용 성향 점수 추출	
통제		정치지식	4개의 정치지식 문항에 대한 정답의 개수를 표준화	0~1
	정치관심 요인	관심도	정치관심 관련 문항 3개에 대한 4점 척도 응답을 종합하여 표준화	0~1
		투표 여부	2020년 국회의원선거 투표 여부	0~1
	사회경제 요인	성별	0: 남성, 1: 여성	기준: 남성
		연령	0: 20대 또는 이하, 1: 30대, 2: 40대, 3: 50대, 4: 60대 이상	기준: 20대 이하
		교육수준	1: 중학교 졸업 이하, 2: 고등학교 졸업, 3: 전문대 졸업, 4: 4년제 대학 졸업, 5 대학원 석사 이상	1~5
가구 월 소득		한 달 가구 소득? 1: 100만 원 미만 ~ 11:1,000만 원 이상	1~11	

2. 주요 변수 분포

1) 천안함 피격 음모론

<그림 1> 천안함 피격 음모론에 대한 동의 여부에 따른 주요변수 분포



<그림 1>은 “천안함은 북한군 어뢰에 의해 피격된 것이 아니다”라는 문항에 대한 동의 여부와 이에 따른 주요 인구변수, 정치지식, 정치관심, 이념 성향, 정부 신뢰, 미디어 사용자 유형 및 투표 여부 등에 따른 분포를 비교한 밀도 그래프이다. 이 음모론의 해석에서 주의할 점은 이 음모론을 사실로 판단(동의)한 집단이 음모론을 신뢰하는 집단이고, 허위로 판단한 집단이 음모를 신뢰하지 않는 집단이라는 것이다. <그림 1>의 패널 A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천안함 피격 음모론에 동의하는 응답자(276명)보다 동의하지 않는 응답자(724명)가 훨씬 많다. 천안함 피격 음모론 동의 여부에 따른 각 변수별 분포를 보면 이 음모론을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보다 연령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여성이 남성보다 이 음모론을 더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천안함 음모론을 신뢰하지 않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으며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는 거의 없었다. 정치관심이 높은 사람들이 이 음모론을 사실로 믿는 경향이 높았다. 또한 정치지식이 높은 집단에서 낮은 집단보다는 이 음모론을 허위로 보는 경향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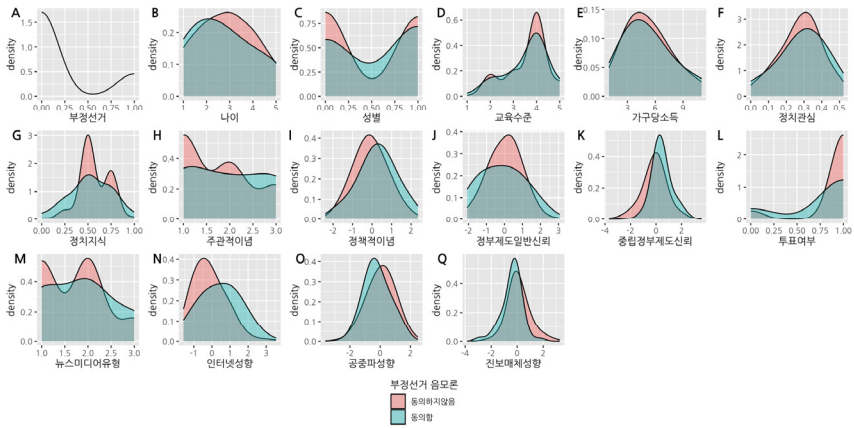
주관적 이념의 분포는 진보 성향의 사람들이 보수 성향의 사람들보다 천안함 피격 음모론을 신뢰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정책적 이념에서도 진보적인 사람들

이 보수적인 사람들보다 이 음모론을 더 신뢰하는 경향을 보였다. 정부제도 일만에 대한 신뢰가 높은 사람들이 오히려 천안함 피격 음모론을 신뢰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중립적 정부제도에 대한 신뢰가 높은 사람들은 이 음모론에 대한 신뢰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⁶⁾ 투표율은 천안함 피격 음모론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약간 높게 나타났다.

미디어 사용 유형에서 두 집단의 차이가 두드러졌는데 천안함 피격 음모론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공중파 매체와 포털을 더 많이 사용하며, 동의하는 사람들이 팟캐스트, SNS 링크 및 유튜브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음모론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인터넷 매체를 더 많이, 공중파를 덜 사용하며, 진보 매체에는 더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총선 부정선거 음모론

〈그림 2〉 총선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한 동의 여부에 따른 주요 변수 분포



6)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서베이가 실시된 시점이 2021년이었던 점에서 정부제도 신뢰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 2021년 당시는 문재인 정부시기였으며, 국회의 다수당도 민주당이었으므로 중앙정부와 의회에 대한 신뢰와 천안함 피격 음모론의 상관관계가 높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제도 신뢰의 다면성과 복잡성을 포착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2개의 주요 요인을 추출한 후 예측값을 구하였다.

<그림 2>는 총선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한 동의여부에 따른 주요 변수별 밀도 그래프이다. “21대 총선은 부정선거였다”라는 음모론(이하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서 동의하는 응답자(212명)가 동의하지 않은 응답자(788명)보다 훨씬 더 적었다(<그림 2>-A).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한 동의 여부에 따라 주요 변수별 분포를 살펴보면 20대와 30대에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남성보다 여성이 이 음모론에 동의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높은 층에서 이 음모론에 동의하지 않는 경향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소득수준에서는 두드러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사실로 믿는 경향을 보였으며, 정치지식이 중간과 중상위인 사람들이 허위로 믿는 경향이 높았으나 정치지식이 낮은 사람들과 높은 사람들은 오히려 사실로 보는 경향이 높았다. 또한 투표한 집단에서 하지 않은 집단보다 총선 부정선거 음모론에 동의하지 않는 경향이 높았다.

주관적 이념과 정책적 이념 모두 보수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이 음모론을 사실로 보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천안함 피격 음모론의 경우와는 상반되는 분포를 보여준다. 정부제도 일반에 대한 신뢰에 있어서는 부정 선거 음모론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중간 정도의 신뢰를 보이는 반면, 동의하는 사람들은 매우 높거나 매우 낮은 정부제도 일반에 대한 신뢰도를 보였다. 부정선거 음모론에 동의하는 사람들의 중립 정부제도에 대한 신뢰는 높게 나타났다.

사용하는 뉴스 미디어 유형에서 두 집단의 차이가 두드러졌는데 총선 부정선거 음모론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공중파 매체와 포털을 더 많이 사용하며, 동의하는 사람들이 팟캐스트, SNS 링크 및 유튜브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음모론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인터넷 매체를 더 많이 사용하고, 공중파를 덜 사용하며, 진보매체에 덜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데이터 분석 결과 및 해석

본 장에서는 천안함 피격 음모론과 총선 부정선거라는 음모론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 분석 대상은 천안함 피격 음모론에 대한 신뢰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며, 두 번째는 총선 부정선거 음모론 신뢰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다. 각 음모론은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으나, 분석의 명확성을 위해 이항 변수(동의, 비동의)로 재코딩하였으며, 데이터 분석에는 로짓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해석의 편의를 위해 결과에서 회귀계수가 아닌 승산비(odds ratio)를 제시하였다.

주요 변수들이 추가됨에 따라 각 변수들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데이터 분석은 다음의 순서로 순차적으로 진행되었다. 첫째, 주요 인구학적 변수를 포함시켰다. 둘째, 정치지식, 정치관심 등의 변수를 포함시켰다. 셋째, 주관적 이념, 정책적 이념, 정부 기관 신뢰 등의 정파적 성향에 관련된 변수들을, 넷째는 미디어 사용 관련 변수들을 추가하였으며, 다섯 번째는, 정파적 이념과 뉴스 미디어 사용 유형과의 상호작용 변수를 포함시켰다.

1) 천안함 피격 음모론 분석

〈표 2〉 “천안함 피격 음모론” 신뢰에 대한 로짓 회귀분석 결과

변수	모델 1-1	모델 1-2	모델 1-3	모델 1-4	모델 1-5
연령대(기준 범주: 20대 또는 이하)					
30대	0.928 (0.218)	0.952 (0.226)	0.976 (0.240)	1.056 (0.267)	1.059 (0.268)
40대	1.812 ^{***} (0.400)	1.921 ^{***} (0.429)	1.739 ^{**} (0.402)	1.880 ^{***} (0.457)	1.871 ^{**} (0.456)
50대	1.330 (0.317)	1.331 (0.322)	1.194 (0.300)	1.433 (0.381)	1.431 (0.381)
60대 이상	1.294	1.165	1.467	1.788 [*]	1.790 [*]

	(0.362)	(0.333)	(0.441)	(0.568)	(0.569)
여성(기준 범주: 남성)	1.241	1.365**	1.292*	1.289	1.279
	(0.179)	(0.203)	(0.201)	(0.209)	(0.208)
가구당소득	0.994	0.986	1.006	0.998	0.999
	(0.0294)	(0.0296)	(0.0315)	(0.0320)	(0.0321)
교육수준	1.063	1.019	0.988	1.002	1.003
	(0.0914)	(0.0892)	(0.0904)	(0.0948)	(0.0949)
정치관심		11.60***	5.141**	2.211	2.139
		(7.364)	(3.549)	(1.680)	(1.629)
정치지식		0.559	0.615	0.930	0.945
		(0.226)	(0.258)	(0.401)	(0.408)
주관적 이념			0.931*	0.941	0.950
			(0.0387)	(0.0416)	(0.0631)
정책적 이념			0.701***	0.729***	0.737***
			(0.0640)	(0.0694)	(0.0711)
뉴스 미디어 사용(기본 범주 (공중파))					
포털				1.307	1.555
				(0.228)	(0.661)
인터넷				1.820**	1.600
				(0.436)	(0.843)
주관적 이념*포털					0.958
					(0.0896)
주관적 이념*인터넷					1.031
					(0.113)
정부제도 신뢰					
정부제도 일반 신뢰			1.339***	1.231**	1.226**

			(0.109)	(0.108)	(0.107)
중립 정부제도 신뢰			0.760 ***	0.770 ***	0.773 ***
			(0.0644)	(0.0721)	(0.0725)
인터넷 사용 성향				1.493 ***	1.492 ***
				(0.129)	(0.129)
공중파 사용 성향				0.741 ***	0.739 ***
				(0.0657)	(0.0655)
진보매체 사용 성향				1.129	1.135
				(0.113)	(0.114)
Constant	0.223 ***	0.174 ***	0.277 **	0.185 ***	0.178 ***
	(0.0818)	(0.0791)	(0.139)	(0.0984)	(0.102)
Loglikelihood	-581.170	-572.697	-538.485	-512.484	-512.260
AIC	1178.340	1165.394	1104.970	1062.968	1066.520
BIC	1217.602	1214.471	1173.678	1156.215	1169.582
Pseudo- R^2	0.014	0.028	0.086	0.130	0.130
Observations	1,000	1,000	1,000	1,000	1,000

괄호 안의 숫자는 표준오차, *** $p < 0.01$, ** $p < 0.05$, * $p < 0.1$

모델 1-1은 주요 인구학적 변수를 포함한 모델이다. 두드러진 특징은 세대 간의 차이이다. 40대는 20대에 비해 81.2% 더 많이 천안함 피격 음모론을 믿는 경향을 보였다. 50대와 60대 역시 20대보다 음모론을 사실로 보는 경향을 보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30대는 20대에 비해 7.2% 덜 믿는 경향을 보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남성보다 여성이 해당 음모론을 신뢰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소득과 교육수준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모델 1-2에서는 정치관심과 정치지식 변수를 추가하였다. 이러한 요인들을 추가하였을 때에도 세대 간의 차이는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40대는 20대에 비해

거의 2배(192.1%)의 확률로 천안함 피격 음모론을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0대와 60대 이상은 20대에 비해 높은 음모론 신뢰 경향을 보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여성이 남성보다 천안함 피격 음모론을 신뢰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가구당 소득과 교육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정치관심과 정치지식은 반대 방향의 효과를 나타났다. 정치관심이 높을수록 천안함 피격 음모론을 신뢰하는 경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정치지식은 부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모델 1-3에서는 주관적 이념, 정책적 이념 및 정부제도 신뢰를 포함하였다. 40대와 20대의 세대 간 차이는 여전히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50대 이상의 연령대에서는 천안함 음모론을 신뢰하는 경향이 높기는 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이 모델에서도 여성이 남성에 비해, 정치관심이 높을수록 천안함 피격 음모론을 신뢰하는 경향은 높게 나타났다. 주관적 이념과 정책적 이념에서 보수 성향일수록 천안함 피격 음모론을 덜 신뢰하며, 진보적일수록 더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제도 일반에 대한 신뢰와 중립 제도에 대한 신뢰는 상반된 양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제도 일반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천안함 피격 음모론을 신뢰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중립 제도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이 음모론에 대한 신뢰는 낮게 나타나며, 중립 제도에 대한 신뢰가 낮을수록 이 음모론에 대한 신뢰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II장에서 제시한 정부제도 일반에 대한 신뢰와 음모론에 대한 신뢰의 관계에 관한 가설(H2-1)은 기각하지만, 중립정부 제도에 대한 신뢰와 음모론 신뢰의 관계가 관한 가설(H2-2)는 지지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 정부제도 일반에 대한 신뢰와 정파성이 연동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응답자가 지지하는 정당이 정권을 가지고 있을 때 정부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가 높고,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정부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가 낮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해석에 따른다면 천안함 피격 음모론에 대한 동의 여부는 정파성의 반영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추정의 검증을 위해서는 정권의 변화와 이에 따른 정부 신뢰의 변화를 추적한 시계열적 데이터가 필요하다. 둘째, 정치적 제도와 비정치적 제도에 대한 신뢰가 동기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사용한 요인분석 결과의 2번째 요인 로딩을 변환한 예측값은 대통령과 중앙정부라는 정치적 제도에 대해서는 음의 관계를, 법원, 군대, 경찰이라는 중립적인, 비정치적 제도에 대해서는 양의 관계를 갖는다. 이 두 가지 요인의 관계를 고려하면 천안함 피격 음모론에 대한 동의와 일반적인 정부제도 신뢰는 양의 관계를, 중립적인 정부제도에 대한 신뢰와는 음의 관계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것은 중립적인 정부제도에 대한 신뢰와 천안함 피격 음모론 간의 음의 관계이다. 중립적인 정부제도에 대한 신뢰가 낮을수록 천안함 피격 음모론을 신뢰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모델 1-4에서는 뉴스 미디어 사용 관련 변수들을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뉴스 미디어 사용 변수들을 통제하였을 때 세대 간의 차이는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20대에 비하여 40대는 90%, 50대는 39.9%, 60대 이상은 72.9% 더 높은 확률로 천안함 피격 음모론을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40대와 60대 이상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32.6% 더 이 음모론을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과 교육수준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관심은 여전히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미디어 사용을 통제된 모델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정치 지식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념적으로 보수적일수록 천안함 피격 음모론을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제도 일반에 대한 신뢰는 높을수록, 중립적 정부제도에 대한 신뢰가 낮을수록 천안함 피격 음모론에 대한 신뢰는 높게 나타났다. 뉴스 미디어 사용에 있어서는 흥미로운 결과가 관찰된다. 공중파 방송 시청자에 비해 포털을 통해 뉴스를 소비하는 사람들은 이 음모론을 더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는 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하지만, 팟캐스트, SNS 링크 및 유튜브 등의 매체를 통해 뉴스를 소비하는

사람들이 천안함 피격 음모론을 믿을 확률은 공중파 뉴스 소비자에 비해 82.0%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매체 사용 유형에서도 관찰된다. 인터넷 매체 사용 성향이 높을수록 이 음모론을 신뢰하는 확률은 높게 나타났으며, 진보 매체 사용 성향이 높은 사람들도 천안함 피격 음모론 신뢰 확률이 높았다. 하지만, 공중파 매체 사용 성향이 높을수록 천안함 피격 음모론 신뢰 확률은 낮게 나타났다.

모델 1-5에서는 모델 1-4에 주관적 이념과 매체 사용 유형의 상호작용 변수를 포함하여 이념적 성향의 미디어 사용 유형에 따른 강화 또는 약화 효과를 검증하였다. 검증 결과 상호작용변수는 포털의 경우 공중파에 비해 부의 효과, 인터넷의 경우 양의 효과를 나타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⁷⁾

각 변수의 통계적 유의미도, 로그우도, AIC, BIC, 그리고 맥파든의 유사 R제곱 (Pseudo- R^2)을 비교한 결과 모델 1-4가 가장 설명력이 높은 모델로 판명된다.

2) 21대 총선 부정선거 음모론 분석

모델 2-1 ~ 모델 2-5는 총선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한 신뢰에 대한 분석이다. 총선 부정선거 음모론에 동의하는 경우 1로, 동의하지 않는 경우 0으로 코딩하였으며,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천안함 피격 음모론과 마찬가지로 해석의 편의를 위해 회귀계수가 아닌 승산비를 보고하였다.

〈표 3〉 “총선 부정선거” 신뢰에 대한 로짓 회귀분석 결과

변수	모델 2-1	모델 2-2	모델 2-3	모델 2-4	모델 2-5
연령대(기준 범주 20대 또는 이하)					
30대	0.879	0.919	0.876	0.965	0.965
	(0.199)	(0.210)	(0.208)	(0.239)	(0.239)

7) 천안함 피격 음모론에 대한 분석에서 모델 1-5 외에 정책적 이념*뉴스 미디어 사용, 주관적 이념*인터넷 사용, 주관적 이념*공중파 사용, 주관적 이념*진보매체 사용 등의 상호작용 변수를 포함하여 조절 효과를 검증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40대	0.580**	0.613**	0.715	0.793	0.792
	(0.137)	(0.146)	(0.176)	(0.206)	(0.206)
50대	0.461***	0.486***	0.489**	0.620	0.619
	(0.122)	(0.130)	(0.137)	(0.184)	(0.184)
60대 이상	1.055	1.081	0.781	0.825	0.824
	(0.290)	(0.304)	(0.233)	(0.269)	(0.269)
여성 (기준 범주: 남성)	1.305*	1.304	1.575***	1.491**	1.491**
	(0.206)	(0.211)	(0.270)	(0.270)	(0.270)
가구당소득	1.020	1.021	0.993	0.981	0.981
	(0.0324)	(0.0329)	(0.0336)	(0.0347)	(0.0348)
교육수준	0.972	0.946	0.972	1.018	1.017
	(0.0906)	(0.0895)	(0.0950)	(0.106)	(0.107)
정치관심		2.304	3.445*	0.962	0.960
		(1.554)	(2.473)	(0.794)	(0.793)
정치지식		0.310***	0.278***	0.484	0.485
		(0.134)	(0.124)	(0.224)	(0.224)
주관적 이념			1.104**	1.100**	1.105
			(0.0495)	(0.0529)	(0.0806)
정책적 이념			1.240**	1.264**	1.266**
			(0.122)	(0.134)	(0.137)
뉴스 미디어 사용(기본 범주 (공중파))					
포탈				0.965	1.009
				(0.190)	(0.548)
인터넷				1.529	1.563
				(0.398)	(0.957)
포탈*주관적이념					0.991
					(0.103)
인터넷*주관적이념					0.995

					(0.116)
정부제도 신뢰					
정부제도 일반 신뢰			0.885	0.791**	0.791**
			(0.0754)	(0.0761)	(0.0764)
중립 정부제도 신뢰			1.717***	1.664***	1.664***
			(0.170)	(0.182)	(0.183)
인터넷 사용				1.892***	1.893***
				(0.186)	(0.187)
공중파 사용				0.708***	0.707***
				(0.0734)	(0.0735)
진보매체 사용				0.704***	0.704***
				(0.0865)	(0.0866)
Constant	0.316***	0.501	0.256***	0.182***	0.178***
	(0.122)	(0.237)	(0.134)	(0.104)	(0.113)
Loglikelihood	-507.524	-503.266	-467.822	-424.730	-424.726
AIC	1031.049	1026.533	963.645	887.461	891.453
BIC	1070.311	1075.610	1032.353	980.708	994.516
Pseudo-R ²	0.018	0.026	0.094	0.178	0.178
Observations	1,000	1,000	1,000	1,000	1,000

괄호 안의 숫자는 표준오차, *** p<0.01, ** p<0.05, * p<0.1

모델 2-1은 주요 인구학적 변수를 포함한 모델이다. 20대와 6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총선 부정선거 음모론을 신뢰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30대, 40대, 50대는 동의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총선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한 동의는 50대에서 가장 낮게, 60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보면 총선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한 신뢰는 60대 이상 > 20대 > 30대 > 40대 > 50대의 순서로 나타난 것이다. 20대에 비해 50대는 53.9%, 40대는 42.0% 총선 부정선거 음모론을 덜 신뢰하는 것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30.5% 이 음모론을 신뢰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천안함 피격 음모론과 마찬가지로

가구당 소득과 교육수준에 따른 유의미한 통계적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모델 2-2에서는 정치관심과 정치지식 변수가 추가되었다. 이러한 요인들을 추가하였을 때 세대 간의 차이는 여전히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20대에 비해 40대와 50대 연령대에서 총선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한 신뢰는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다. 즉, 40대와 50대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20대는 이 음모론을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모델 2-1에서와 마찬가지로 여성이 이 음모론을 더 신뢰하는 경향을 보이는 듯하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또한, 가구당 소득과 교육수준의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정치관심이 높을수록 이 음모론을 신뢰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정치지식 수준이 높을수록 이 음모론을 신뢰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모델 2-3에서는 주관적 이념, 정책적 이념 및 정부에 대한 신뢰를 포함하였다.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총선 부정선거 음모론을 신뢰하는 경향이 20대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50대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여성이 남성에게 비해 총선 부정선거 음모론을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수준과 교육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정치관심이 높을수록 총선 부정선거 음모론을 신뢰하는 경향은 높게 나타나기는 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정부제도 일반에 대한 신뢰가 낮을수록 부정선거 음모론을 신뢰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천안함 피격 음모론에 대한 분석에서 제시했던 정부제도 일반에 대한 신뢰와 정파성의 관계를 고려하면 예측되는 결과이다. 하지만, 중립 정부제도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한 신뢰 역시 높게 나타나며, 중립 정부제도에 대한 신뢰가 낮을수록 이 음모론에 대한 신뢰도 낮게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II장에서 제시한 정부제도 일반에 대한 신뢰와 음모론에 대한 신뢰의 관계에 관한 가설(H2-1)은 지지하지만, 중립정부 제도에 대한 신뢰와 음모론 신뢰의 관계가 관한 가설(H2-2)는 기각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중립 정부제도에

대한 신뢰 역시 일반 정부 기관에 대한 신뢰와 마찬가지로 정파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의 가능성은 법원, 경찰, 군대 등의 비정치적, 중립적으로 간주되는 정부제도에 대해 이념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의 사람들의 신뢰도가 높다는 점과 연관된다. 주관적 이념과 정책적 이념에서도 보수성향일수록 총선 부정선거 음모론을 신뢰하며, 진보적일수록 덜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중립 정부제도에 대한 신뢰와 이념적 성향의 관계에 대한 더욱 정교한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모델 2-4에서는 미디어 사용 관련 변수들을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매체 사용 관련 변수를 통제하였을 때 20대에 비해 모든 연령대에서 총선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한 신뢰가 낮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40.5% 더 이 음모론을 신뢰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과 교육수준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관심은 여전히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미디어 사용을 통제한 모델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모델 2-3에서와 달리 미디어 사용 관련 변수들을 통제하였을 때 정치관심의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음의 방향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정치지식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념적으로 보수적일수록 총선 부정선거 음모론에 동의하는 확률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모델 1-4와 마찬가지로 정부제도 일반에 대한 신뢰는 낮을수록, 중립적 정부제도에 대한 신뢰는 높을수록 총선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한 신뢰는 높게 나타났다.

뉴스 미디어 사용에 있어서는 공중파 방송 시청자와 포털 사용자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인터넷 매체(팟캐스트, SNS 링크, 유튜브)를 통해 뉴스를 소비하는 사람들은 공중파 사용자에 비해 52.9% 정도 총선 부정선거 음모론에 동의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나 90% 신뢰수준에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인터넷 매체 사용 성향이 높을수록, 공중파 사용 성향이 낮을수록, 진보 매체에 대한 노출 성향이 낮을수록 부정선거 음모론 신뢰확률은 높게 나타났다

모델 2-5에서는 모델 2-4에 주관적 이념과 매체 사용 유형의 상호작용 변수를 포함하여 이념적 성향의 미디어 사용 유형에 따른 강화 또는 약화 효과를 검증하였다. 검증 결과 상호작용변수는 공중파에 비해 포털과 인터넷의 경우 모두 부의 효과를 나타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⁸⁾

각 변수의 통계적 유의미도, 로그우도, AIC, BIC, 그리고 맥파든의 유사 R제곱 (Pseudo- R^2)을 비교한 결과 모델 2-4가 가장 설명력이 높은 모델로 판명된다.

3) 분석 결과 종합

천안함 피격 음모론과 총선 부정 선거 음모론이라는 두 개의 상반된 정파적 성격을 가지는 음모론에 대한 개인적 신뢰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 세대에 비해 40대와 50대에서 천안함 피격 음모론에 대한 신뢰는 두드러졌으며,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 40대와 50대에 비해 20대가 더 신뢰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또한, 남성에 비해 여성이 이 두 음모론 모두 신뢰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정치지식이 낮을수록 음모론을 신뢰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둘째, 주관적 이념은 진보에서 보수 성향으로 변할수록 천안함 피격 음모론에 대한 신뢰가 약 5.9%씩 감소하였으며(승산비 0.941, $p<0.01$), 총선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서는 10%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승산비 1.100, $p<0.01$). 정책적 이념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더 명확하였다. 정책적 이념이 진보에서 보수로 변할수록 천안함 피격 음모론을 신뢰할 확률은 27.1% 감소하였으며(승산비 0.729, $p<0.01$), 부정선거 음모론의 경우 26.4% 증가하였다(승산비 1.264, $p<0.05$).

셋째, 공중파를 사용하여 뉴스를 볼수록 천안함 피격 음모론에 대한 신뢰 확률

8)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한 분석에서도 모델 2-5 외에 정책적 이념*뉴스 미디어 사용, 주관적 이념*인터넷 사용, 주관적 이념*공중파 사용, 주관적 이념*진보매체 사용 등의 상호작용 변수를 포함하여 조절 효과를 검증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은 낮아졌다(승산비 0.741, $p < 0.01$). 반면 유튜브, 팟캐스트, SNS를 통해 뉴스를 보는 인터넷 사용 성향이 높아질수록 천안함 음모론을 신뢰할 확률은 증가했다(승산비 1.493, $p < 0.01$). 부정선거 음모론에서도 인터넷 사용 성향이 높을수록 부정선거 음모론을 신뢰할 확률이 증가하였으며(승산비 1.892, $p < 0.01$), 공중파 사용 성향이 높을수록 음모론 신뢰확률이 감소하였다(승산비 0.708, $p < 0.01$). 두 음모론에서 모두 팟캐스트, SNS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뉴스를 접하는 사람들이 공중파를 통해 뉴스를 접하는 사람들보다 음모론을 신뢰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포털을 통해 뉴스를 보는 집단은 공중파를 통해 뉴스를 보는 집단과 유의미한 통계적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넷째, 정부제도에 대한 신뢰와 음모론에 대한 신뢰의 관계는 단선적이지 않으며, 복합적이라는 점이 나타났다. 정부제도 일반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천안함 음모론에 대한 신뢰는 증가하며,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한 신뢰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중립적 정부제도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천안함 음모론에 대한 신뢰는 감소하며, 부정 선거 음모론에 대한 신뢰는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정부의 각 기관에 대한 신뢰와 이념적 성향 간의 다면적이고, 복합적인 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다섯째, 이념 성향과 공중파, 포털 사이트 및 인터넷을 비롯한 뉴스 미디어 사용의 상호작용을 통한 분석 결과 천안함 피격 음모론과 부정선거 음모론의 신뢰에 미치는 매개 또는 조절 효과의 존재는 입증되지 않았다. 이념 성향에 따라서 뉴스 매체를 선택하고, 정파적 음모론에 대한 신뢰는 이를 반영하는 것이며, 사용 뉴스 매체를 통한 간접적인 효과는 관찰되지 않았다.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천안함 피격과 21대 총선 부정선거라는 한국 사회의 대표적인 정파성을 띠는 음모론에 대한 신뢰에 미치는 요인들을 경험적 데이터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음모론이란 증거에 기반하지 않고 복수의 행위자가 비밀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만들어낸 소설적 구성의 이야기 구조이다 (Abalakina-Paap et al. 1999; Golec de Zavala and Federico 2018, 1011). 음모론은 통치자가 지배력을 강화하려 하거나, 피지배자가 저항하려는 권력적 표현이며 정치적 열망이다(전상식 2014).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천안함 피격 음모론은 보수정권의 권력에 저항하는 진보세력의 저항 음모론이라 할 수 있으며, 부정선거 음모론은 진보정권의 권력에 저항하는 보수세력의 저항 음모론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경험적 분석 결과는 두 음모론이 한국의 정파적 이념 대결을 반영하고 있으며, 음모론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도 정파성과 상관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 첫째, 진보—보수의 정치이념에 따라 각 음모론에 대한 신뢰가 다르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경험적 분석은 주관적 이념, 정책적 이념 두 가지로 측정된 이념의 영향력이 명확히 나타났다. 정치이념이 진보적일수록 천안함 피격 음모론을 사실로 신뢰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대로 정치이념이 보수적일수록 부정선거 음모론을 사실로 신뢰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론적으로 한국정치에서 정치이념의 부족주의적(tribalistic) 경향을 드러낸다. 1960년대 미국에서 정치이념은 복잡한 현실을 이해하는 생각체계로서 정치과정에서 일관성있는 사고 체계로 긍정적 의미로 해석되어 왔다(Converse 1964), 2020년대 한국에서 이념은 객관적 사실보다 자신의 정파적 신념을 정당화하는 부족주의적 성향을 지칭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정파적 성향이 정부제도 신뢰와 미디어 사용 등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본 연구에서 미디어 사용의 매개 또는 조절 효과는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은 정파적 성향이 음모론에 대한 신뢰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입증한다.

둘째, 인터넷 미디어는 보수 혹은 진보 음모론 모두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미디어(유튜브, 팟캐스트 등)를 통해 정치정보를 이용할수록 공중파 매체, 종이신문, 그리고 포털을 통해 뉴스를 소비하는

사람들보다 음모론을 더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인터넷 미디어가 정치 공론장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현실을 보여 준다. 정치분야에 도입된 2000년을 전후하여 인터넷은 낮은 정치정보 획득비용을 장점으로 시민의 참여 확대와 참여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현재 유튜브와 팟캐스트는 음모론 확산의 도구가 되고 있다. 포털은 현재 가짜뉴스에 대한 자율규제 체계를 운영 중이지만, 유튜브는 한국의 자율규제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⁹⁾ 음모론과 가짜뉴스 확산에 대응하도록 한국 정부는 외국 국적 인터넷 정보 서비스 기업에게 요구하고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 동시에 유권자들은 유튜브 등을 통해 얻는 정보에 대해서 공중과 언론사와 포털 기사를 통해 비교검증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셋째, 정부제도에 대한 신뢰와 음모론에 대한 신뢰의 관계는 다면적이며 복잡적이라는 점이다(류태건 2016; 서재권·이병재 2022). 본 연구의 경험적 분석에 따르면 정부제도 일반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천안함 음모론에 대한 신뢰는 증가하며,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한 신뢰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중립적 정부제도에 대한 신뢰는 단선적이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중립적 정부제도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천안함 음모론에 대한 신뢰는 감소하며, 부정 선거 음모론에 대한 신뢰는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정부의 각 기관에 대한 신뢰와 이념적 성향 간의 다면적이고, 복합적인 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9) 한국의 자율규제 기구는 KISO(Korea Internet Self-Governance Organization)가 있으며, 회원사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 한국 기업들이다. 유튜브와 페이스북과 같은 외국적 기업은 참여하지 않고 있다.

참고문헌

- 가상준. 2014. “한국 국회는 양극화되고 있는가?” 『의정논총』 9권 2호, 247-272.
- 구지혜·김민철. 2023. “온라인 공간에서의 반페미니즘 담론에 관한 연구: GS25 남성혐오 논란과 음모론.” 『아시아여성연구』 62권 3호, 115-153.
- 길정아. 2019. “한국 유권자의 당파적 편향: 양극화의 미시적 토대.”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상균. 2020. “보수 신문의 천안함 침몰사건의 보도에 관한 사례 연구.” 『사회과학연구』 2권 2호, 147-182.
- 김태훈. 2020. “결국 대법원 가는 4·15 총선...민경욱, 선거무효 소송 내.” 『세계일보』 (5월 7일 <https://www.segye.com/newsView/20200507510631> (검색일: 2024. 5. 17)).
- 김형준. 2015. “사회 갈등 해결을 위한 국회의 역할과 과제: ‘국회 내 정당 양극화’ 해소를 중심으로.” 『대한정치학회보』 23권 1호, 71-97.
- 김효은. 2016. “신상철 ‘천안함 좌초설’은 무죄, 군 비방은 유죄.” 『CBS노컷뉴스』(1월 25일) <https://v.daum.net/v/20160125173405522> (검색일: 2024. 5. 3).
- 뉴스시스. 2023. “대법원장 신청서 부정선거 논란 공방...여 ‘사전투표방식 달라’ vs. 야 ‘불가능’” 12월 6일. https://www.newsis.com/view/NISX20231206_0002548671 (검색일: 2024. 6. 15)
- 대법원. 202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명예훼손.” 사건번호: 2020도14513, 2022년 6월 9일 판결문.
- 대한민국 국방부. 2010. 「합동조사결과보고서: 천안함 피격사건」, 2010년 9월 민·군 합동조사단. <https://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26908>(검색일: 2024. 5. 20.)
- 류태진. 2016. “지난 30년간 한국의 정치신뢰 변화.” 『21세기정치학회보』 26권 1호, 1-28.
- 서울고등법원. 202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 손),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명예훼손.” 사건번호: 2016노444, 2020년 10월 6일 판결문.
- 서재권·이병재. 2021. “중앙-지방 간 정부신뢰의 탈동조화? 부산과 인천 사례를 중심으로.” 『동서연구』 33권 4호, 153-183.
- 선스타인, 캐스 저. 이시은 옮김. 2015. 『누가 진실을 말하는가: 미국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쓴 음모론과 위험한 생각들』. 파주: 21세기북스.
- 안재원. 2022. “반지성주의와 음모론.” 『서양사연구』 66권, 29-57.
- 윤성이·이민규. 2014. “한국사회 이념갈등의 세대 간 특성 비교: 주관적 이념결정 요인과 이념표상의 차이를 중심으로.” 『21세기정치학회보』 24권 3호, 271-292.
- 이우연. 2023. “민주당 수석대변인 ‘천안함 북한 소행 맞다...부적절 표현 사과.’” 『한겨레신문』 6월 7일.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094894.html>(검색일: 2024. 6. 15).
- 이하림·유홍식. 2021. “국내 유튜브 1인 창작자 콘텐츠의 내용적 유해성에 대한 분석 연구.” 『스피치와 커뮤니케이션』 16권 1호, 119-152.
- 장승진·하상웅. 2022. “한국 유권자의 정당일체감: 사회적 정체성인가, 정치적 이해관계인가?” 『한국정치학회보』 56집 2호, 37-58.
- 전명훈. 2020. “여 추천 선관위원 ‘천안함은 북소행...과거 발언 사죄.’” 『연합뉴스』 (9월 22일). <https://www.yna.co.kr/view/AKR20200922079951001> (검색일: 2024. 6. 15).
- 전상식. 2014. 『음모론의 시대』, 서울: 문학과지성사.
- 정성조. 2022. “대법 “2020년 총선, 부정선거 아냐”...민경욱 선거무효소송 기각(종합).” 『연합뉴스』 7월 28일 <https://www.yna.co.kr/view/AKR20220728110752004> (검색일: 2024. 5. 17).
- 정태일. 2017. “한국정치에서 음모론과 선거의 연관성: ‘장준하 사망’, ‘광주민주화 운동’, ‘천안함 침몰’을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사회』 1권 1호, 7-30.
- 조대근·김진원. 2023. “천안함 피격사건과 2030세대 남성 보수화: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물에 대한 문화해석.” 『문화와 정치』 10권 1호, 73-111.

- 춧불행동TV. 2023. “천안함 사건 핵심 조작 5가지! [신상철 특집대담].” <https://www.youtube.com/watch?v=hgbEAymifYY> (6월 15일) (검색일: 2024. 5. 3).
- 허석재. 2013. “한국에서 정당일체감의 변화: 세대교체인가, 생애주기인가” 『한국정당학회보』 13권 1호, 65-93.
- Abalakina-Paap, Marina, Walter G. Stephan, Traci Craig, and W. Larry Gregory. 1999. “Beliefs in Conspiracies.” *Political Psychology* 20(3): 637-647.
- Bennett, W. Lance, and Shanto Iyengar. 2008. “A New Era of Minimal Effects? The Changing Foundations of Political Communication.” *Journal of Communication* 58(4): 707-731.
- Bierwaczonok, Kinga, Alecksander B. Gundersen, and Jonas R. Kunst. 2022. “The Role of Conspiracy Beliefs for COVID-19 Health Responses: A Meta-analysis.” *Current Opinion in Psychology* 46: 1-4.
- Bramson, Aaron, Patrick Grim, Daniel J. Singer, Steven Fisher, William Berger, Graham Sack, and Clarissa Flocken. 2016. “Disambiguation of Social Polarization Concepts and Measures.” *The Journal of Mathematical Sociology* 40(2): 80-111.
- Chigwedere, Pride, George R. Seage, III, Sofia Gruskin, Tun-Hou Lee, and M. Essex. 2008. “Estimating the Lost Benefit of Antiretoviral Drug Use in South Africa.” *Journal of 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 49(4): 410-415.
- Chua, Amy. 2018. *Political Tribes: Group Instinct and the Fate of Nations*. London: Penguin Books.
- Converse, Philip. 1964. “The Nature of Belief Systems in Mass Publics.” In David Apter, ed. *Ideology and Discontent*. New York: The Free Press of Glencoe.
- Corbu, Nicoleta. 2023. “Do Conspiracy Theories Circulating in the Media or Their Debunking Affect People’s Trust in the Media?” *Social Science Information* 62(3): 345-366.
- DiMaggio, Paul, John Evans, and Bethany Bryson. 1996. “Have Americans’ Social

- Attitudes Become More Polarized?”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2(3): 690-755.
- Douglas, Karen M., Joseph E. Uscinski, Robbie M. Sutton, Aleksandra Cichocka, Turkey Mefes, Chee Siang Ang, and Farzin Deravi. 2019. “Understanding Conspiracy Theories.” *Political Psychology* 40(1): 3-35.
- Duclos, Jean-Yves, Joan Esteban, and Debraj Ray. 2004. “Polarization: Concepts, Measurement, Estimation.” *Econometrica* 72(6): 1737-1772.
- Dylko, Ivan, Igor Dolgov, William Hoffman, Nicholas Echhart, Maria Molina, and Omar Aaziz. 2017. “The Dark Side of Technology: An Experimental Investigation of the Influence of Customizability Technology on Online Political Selective Exposure.” *Computers in Human Behavior* 73: 181-190.
- Ellis, Christopher, and James A. Stimson. 2012. *Ideology in America*.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Esteban, Jean-Maria, and Debraj Ray. 1994. “On the Measurement of Polarization.” *Econometrica* 62(4): 819-851.
- Eyles, John, Jana Fried, and Emily Catherine Eyles. 2014. “Redacted in Nebraska: the Noises of Conspiracy around Nuclear Power Problems.” *GeoJournal* 79(30): 329-342.
- Festinger, Leon. 1962. *Theory of Cognitive Dissonance*.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Fiorina, Morris P., Samuel A. Abrams, and Jeremy C. Pope. 2008. “Polarization in the American Public: Misconceptions and Misreadings.” *The Journal of Politics* 70(2): 556-560.
- Fiorina, Morris. 2010. *Culture Wars? The Myth of Polarized America*. 3rd ed. New York: Longman.
- Goertzel, T. 1994. “Belief in Conspiracy Theories.” *Political Psychology* 15(4): 731-742.
- Golec de Zavala, Agnieszka, and Christopher M. Federico. 2018. “Collective

- Narcissism and the Growth of Conspiracy Thinking over the Course of the 2016 United States Presidential Election: A Longitudinal Analysi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8(7): 1011-1018.
- Iyengar, Shanto, and Kyu S. Hahn. 2009. “Red Media, Blue Media: Evidence of Ideological Selectivity in Media Use.” *Journal of Communication* 59(1): 19-39.
- Iyengar, Shanto, Kyu S. Hahn, Jon A. Krosnick, and John Walker. 2008. “Selective Exposure to Campaign Communication: The Role of Anticipated Agreement and Issue Public Membership.” *The Journal of Politics* 70(1): 186-200.
- Keeley, Brian L. 1999. “Of Conspiracy Theories.” *The Journal of Philosophy* 96(3): 109-126.
- Knobloch-Westerwick, Silvia. 2015. *Choice and Preference in Media Use: Advances in Selective Exposure Theory*. New York: Routledge.
- Lazarsfeld, Paul Felix, Bernard Berelson, and Hazel Gaudet. 1948. *The People's Choice: How the Voter Makes Up His Mind in a Presidential Campaig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Lee, Sangwon, Homero Gil de Zuniga, and Kevin Munger. 2023.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Fake News Exposure: A Two-panel Study on How News Use and Different Indicators of Fake News Exposure Affect Media Trust.”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49(4): 408-420.
- Mason, Lilliana. 2015. ““I Disrespectfully Agree”: The Differential Effects of Partisan Sorting on Social and Issue Polarization.”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9(1): 128-145.
- Mason, Lilliana. 2018. *Uncivil Agreement: How Politics Became Our Identity*.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cCarty, Nolan. 2019. *Polarization: What Everyone Needs to Know*.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McCarty, Nolan, Keith Poole, and Howard Rosenthal. 2016. *Polarized America: The*

- Dance of Ideology and Unequal Riches*. 2nd ed. Cambridge, MA: The MIT Press.
- Melley, Timothy. 2000. *Empire of Conspiracy: The Culture of Paranoia in Postwar America*. Ithaca &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 Miller, Joanne M., Kyle L. Saunders, and Christina E. Farhart. 2016. "Conspiracy Endorsement as Motivated Reasoning: The Moderating Roles of Political Knowledge and Trust."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60(4): 824-844.
- Nyhan, Brendan, and Jason Reifler. 2010. "When Corrections Fail: The Persistence of Political Misperceptions." *Political Behavior* 32(2): 303-330.
- Oliver, J. Eric, and Thomas J. Wood. 2014. "Conspiracy Theories and the Paranoid Style(s) of Mass Opinion."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8(4): 952-966.
- Pigden, Charles. 1995. "Popper Revisited or What is Wrong with Conspiracy Theories?" *The Philosophy of the Social Sciences* 25(1): 3-34.
- Prooijen, Jan-Willem van, Giuliana Spadaro, and Haiyan Wang. 2022. "Suspicion of Institutions: How Distrust and Conspiracy Theories Deteriorate Social Relationships." *Current Opinion in Psychology* 43: 65-69.
- Przeworski, Adam. 2022. "What Do Measures of Polarization Measure and What They Do Not?" (May 10, 2022). Available at SSRN: <https://ssrn.com/abstract=4105625>.
- Radnitz, Scott. 2022a. "Dilemmas of Distrust: Conspiracy Beliefs, Elite Rhetoric, and Motivated Reasoning."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75(4): 1143-1157.
- Radnitz, Scott. 2022b. "Why Democracy Fuels Conspiracy Theories." *Journal of Democracy* 33(2): 147-161.
- Sides, John, and Daniel Hopkins, eds. 2015. *Political Polarization in American Politics*. New York: Bloomsbury.
- Stanig, Piero. 2011. "Measuring Political Polarization in Comparative Perspective." Paper Presented in American Political Science Annual Meeting in Seattle, U.S.A. September.

- Stroud, Natalie J. 2011. *Niche News: The Politics of News Choic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Swami, Viren, Tomas Chamorro-Premuzic, and Adrian Furnham. 2010. "Unanswered Questions: A Preliminary Investigation of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 Predictors of 9/11 Conspiracist Beliefs." *Applied Cognitive Psychology* 24: 749-761.
- Uscinski, Joseph E., and Joseph M. Parent. 2014. *American Conspiracy Theorie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Uscinsky, Joseph E., Adam M. Enders, Michelle I. Seelig, Casely A. Kofstad, John R. Funchion, Caleb Everett, Stefan Wuchty, Kamal Premaratne, and Monohar N. Murthi. 2021. "American Politics in Two Dimensions: Partisan and Ideological Identities versus Anti-Establishment."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65(4): 877-895.
- Zillman, Dolf, and Jennings Bryant. 1985. *Selective Exposure to Communication*. New York: Routledge.

투고일: 2024.06.22. 심사일: 2024.07.21. 게재확정일: 2024.07.22.

〈첨부 1〉 주요 변수 기술 통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나이	1,000	41.85	12.37	19	81
성별	1,000	0.500	0.500	0	1
가구당 소득	1,000	5.201	2.533	1	11
교육수준	1,000	3.610	0.879	1	5
정치관심	1,000	0.282	0.122	0	0.522
정치지식	1,000	0.562	0.180	0	1
주관적 이념	1,000	4.459	1.946	0	10
정책적 이념	1,000	-2.48e-10	0.909	-2.399	2.352
정부제도 일반 신뢰	1,000	-3.25e-09	1	-2.076	3.070
중립 정부제도 신뢰	1,000	-1012e-09	1	-3.693	3.573
뉴스 미디어 사용	1,000	1.722	0.695	1	3
인터넷 사용 성향	1,000	-1.45e-09	0.982	-1.574	3.546
공중파 사용 성향	1,000	1.18e-09	0.930	-3.629	2.494
진보 매체 사용 성향	1,000	-9.12e-10	0.915	-3.890	3.273
천안함 피격 음모론	1,000	0.276	0.447	0	1
총선 부정선거 음모론	1,000	0.212	0.408	0	1

〈첨부 2〉 미디어 사용빈도 요인 분석 결과

요인	고유값	차이	비율	누적비율
요인 1	8.623	6.337	0.662	0.662
요인 2	2.285	0.695	0.176	0.838
요인 3	1.590	0.789	0.122	0.960

미디어	요인 1	요인 2	요인 3
조선일보	0.525	0.245	-0.551
중앙일보	0.638	0.250	-0.519
동아일보	0.669	0.198	-0.499
한겨레	0.689	0.098	0.194

〈첨부 4〉 정부제도 및 기관 신뢰에 관한 문항

문항). 이하의 질문은 정부제도 및 기관에 대한 신뢰에 해당하는 질문입니다.

제도와 행위자에 대한 신뢰	매우 부정 ←-----→ 매우 긍정				
	①	②	③	④	⑤
7-1. 나는 대통령을 신뢰한다.	①	②	③	④	⑤
7-2. 나는 법원을 신뢰한다.	①	②	③	④	⑤
7-3. 나는 중앙정부를 신뢰한다.	①	②	③	④	⑤
7-4. 나는 국회를 신뢰한다.	①	②	③	④	⑤
7-5. 나는 군대를 신뢰한다.	①	②	③	④	⑤
7-6. 나는 경찰을 신뢰한다.	①	②	③	④	⑤

〈첨부 5〉 정부제도 신뢰 요인 분석 결과

요인	고유값	차이	비율	누적비율
요인 1	3.419	2.411	0.570	0.570
요인 2	1.008	0.430	0.168	0.738

정부 제도 신뢰	정부기관 및 제도	요인 1	요인 2
정부제도 일반 신뢰	대통령	0.649	0.674
	중앙정부	0.831	0.399
	국회	0.767	0.021
중립 정부 제도 신뢰	법원	0.758	-0.206
	군대	0.732	-0.464
	경찰	0.780	-0.369

Exploring the Determinants of Belief in Conspiracy Theories: Partisanship, Media Use, and Trust in Government

Lee, Byung-Jae | Yonsei University

Jho, Whasun | Yonsei University

Kim, Beomsoo | Yonsei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s how individual partisanship, media consumption patterns, and trust in government influence belief in political conspiracy theories. The analysis, based on a 2021 independent survey, utilizes a logit regression model to assess beliefs in both conservative and liberal conspiracy theories. The findings reveal that partisanship significantly affects the likelihood of believing in conspiracy theories. Moreover, those who consume news via internet platforms - such as YouTube, podcasts, and social media - are more prone to such beliefs than those who rely on traditional media like television and newspapers. Interestingly, media consumption did not moderate the relationship between partisanship and conspiracy theory beliefs. Although internet portals are categorized as internet media, their consumption patterns align more closely with traditional media than with platforms like YouTube, podcasts, and social media, which are the primary sources for the dissemination of conspiracy theories. Additionally, the degree of belief in conspiracy theories is influenced by the level of trust in political versus neutral governmental institutions.

Key Words | Conspiracy Theory, Partisanship, Political Ideology, Internet Media, Trust in Government